

# 올 EBS 연계 작년수준… 변형출제 대비해야

## ■ 50일 남은 수능전략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일로 50일을 남겨두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능에서도 EBS 연계율이 지난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은 기간 EBS 교재를 개괄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입시 전문기관들이 권장하는 주요 영역별 학습포인트를 소개한다.

◇언어 영역=이번 9월 모의수능에서 언어영역은 만점자 비율이 1%에 근접하는 매우 쉬운 시험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2013학년도 수능 언어영역은 9월 모의수능과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쉬운 수능에서는 변별력이 있는 몇 개의 고난도 문항을 제대로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가 등급을 구분짓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중·상위권 학생의 경우 수능 50여 일을 앞두고 고난도 문항에 집중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꾸준히 학습한 EBS 교재와 기출문제에서 고난도 문항들을 추려내 반복적으로 풀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 과정을 익히는 것이 좋다.

하위권 학생은 출제 가능성성이 큰 EBS 지

## 언어영역-만점자 비율 1% 고난도 문항 집중… 새로운 교재 금물

## 수리영역-기출문제 오답노트 바탕으로 기본개념·원리 완벽 이해

## 외국어영역-‘약점 보완·고난도 대비·실전문제 풀이’ 3단계 학습

문과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틀린 문항을 종점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전략이다. 수능 50여 일을 남겨두고 새로운 교재는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시간 관리 요령도 필요하다. 시험 시간은 100분이지만 실제 시험장에서의 답안 체크 및 검토 시간을 감안, 시험 시간을 80분 정도로 생각하고 문제 풀이를 연습해야 한다.

종위권 수험생은 고난도 문제보다 2점, 3점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하다. 불확실한 개념정리를 위해 기본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한다. 중위권은 틀리는 문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통해 취약점을 찾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올해 6월과 9월에 치른 수능모의 평가에서 자주 출제된 단원이나 문제 경향을 분석하고, EBS 수능교재를 공부할 때에도 단순히 문제를 풀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리해야 한다.

하위권 수험생은 고난도 문제보다 기출문제의 2점, 3점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을 집중 투자한다. 즉, 활용 문제보다는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 기초 개념을 확실히 다지는 것이 필수다.

하위권 수험생들이 중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리영역을 포기해선 안된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기본 점수를 따내야 한다.

◇외국어=수능이 약 50일 남은 시점에서 조급한 마음에 학습량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부터는 학습 마무리 단계 이므로 ‘약점 보완, 고난도 대비, 풍부한 실전문제 풀이’ 3단계 학습에 집중하도록 하자.

외국어 영역의 등급을 올리기 위한 첫 번째 마무리 단계는 스스로 약점을 분석한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학습법을 익히는 것이다. 빙크론, 주제, 요약 등 고난도 유형에 대한 준비도 필수다.

자신이 어법·어휘에 약한지 아니면 지문 이해력은 높지만 정답을 결정하는 판단력이 약한지 등을 파악, 취약한 부분만을 공략하는 집중적인 학습을 해야 한다.

EBS 교재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능 준비를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와 같이 EBS 교재와 지문은 동일하지만 선택지가 까다롭게 변형되어 출제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하므로 단순하게 문제 풀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문 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분석에 집중해야 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과기원, 대학평가서 세계 7위

### 영국 QS사 발표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부문

광주과학기술원(GIST·총장 김영준)이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사가 최근 발표한 2012년 세계대학평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Citations per Faculty)’에서 세계 7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지스트는 이 항목에서 아시아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세계 10위 이내인 7위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연구 수준을 나타내는 ‘교수 1인당 피인용 수’에서는 세계 10위권을 미국 대학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올해에도 미국 록펠러 대학이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2위는 칼텍(Caltech·캘리포니아 공과대학·미국), 3위는 스탠포드 대학(미국), 4위는 UC샌프란시스코(미국), 5위는 하버드 대학(미국)이 이름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지스트는 글로벌 톱 클래스인 해외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유했음을 입증했다.

‘교수 1인당 피인용 수’는 연구 실적과 논문의 질, 대학의 평균적인 연구 역량 등을 보여주는 항목이다. 연구자의 논문이 해당 분

야 전문가들에게 많이 인용될수록 의미 있고 타월한 연구 성과이기 때문에, 연구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여겨진다.

지스트는 이번 평가에서 세계 최대 논문 초록 및 인용 횟수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프러스(Scopus)’를 활용해 최근 5년 간 교수 1인당 논문 인용 횟수를 집계해 평가 지표로 활용했다.

지스트는 지난해 평가에서 99.7점을 받아 세계 12위에 올랐고, 올해 100점을 기록해 상위권 대학(1~6위 모두 100점)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지스트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은 성과 중심의 교수 업적 평가시스템 덕분이다. 지스트는 매년 교수 업적을 평가할 때, 분야별 상위 10% 또는 30% 이내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저널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해 논문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 공동저자(Co-author)보다 주저자(First author)로 참여한 논문을 더 중점적으로 평가해 연구자의 참여 정도를 실작에 반영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대 호텔조리학과 세계요리대회서 대상

### 서정숙 학생 개인전시부문… 김현철교수·김지웅학생도 입상

광주대 호텔조리학과 김현철(사진 가운데) 교수와 김지웅 학생(1년·오른쪽), 서정숙 학생(1년)이 최근 루마니아에서 열린 WACS세계요리대회에 출전해 대거 입상했다.

국가대표(A팀)로 출전한 서정숙 학

생은 개인전시부문에서 대상을, 단체 라이브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김지웅 학생은 국가대표 B팀으로 출전해 개인 창작에서 은메달을, 김현철 교수는 단체 뷔페부문 은상과 개인라이브부문 금상을 차지했다.

## “태풍이 남긴 상처 치유합니다”

### 동신대 재난심리지원센터, 19일 장흥서 지원 활동

전남 및 서해안을 강타한 태풍 불리번과 덴빈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심리 상담 서비스가 실시된다.

동신대학교 내에 들어선 전남재난심리지원센터(센터장 최재산 동신대 상담 심리학 교수)는 19일 소방방재청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장흥군 회진면에서 심리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센터는 이번 활동을 통해 태풍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장흥 지역 주민들이 후유증없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란 태풍, 화재 등 자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대학생활 잊지 못할 낭만과 추억

### 광주여대 18~20일 가을축제 ‘송강대동제’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주자문)는 총학생회 주최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14회 ‘2012 송강대동제’ 축제를 캠퍼스내 운동장 특설무대와 무등관 앞 행사장 등 교내 일원에서 진행한다.

지역 유일의 여자대학교인 광주여대 인의 가을축제는 18일 오후 5시30분 육군 31사단 군악대의 오프닝공연을 시작으로 6시에 총장과 광산구청장 축사, 재학생이 함께 참가하는 협회 및 송편만들기 나눔행사를 실시하며 3일 동안 대학 생활의 낭만과 추억, 유익한 프로그램이 가득한 이색 경연대회와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도교육청 첫 석사학위과정 교원 해외연수

전남도교육청이 공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정 이래 처음으로 석사학위 과정 해외 연수를 지원한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해외 장기연수 대상자 9명, 단기 4명 등 초·중등 교원 18명을 선발, 이번 달 중순부터 해외 연수를 실시한다.

장기연수 대상자들은 미국 루지애나 대학에서 2년 동안 교수법·학사행정 등 석사학위 과정을, 단기 연수자들은 캐나다 씨리교육 천 산하 초·중등 학교에서 6개월간 이론·실무를 익힌다. 연수 경비는 도교육청이 전

액 지원한다.

도교육청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위과정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개정 이래 처음으로 연수를 지원한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해외 장기연수 대상자 9명, 단기 4명 등 초·중등 교원 18명을 선발, 이번 달 중순부터 해외 연수를 실시한다.

장기연수 대상자들은 미국 루지애나 대학에서 2년 동안 교수법·학사행정 등 석사학위 과정을, 단기 연수자들은 캐나다 씨리교육 천 산하 초·중등 학교에서 6개월간 이론·

실무를 익힌다. 연수 경비는 도교육청이 전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여 혜택을 갖고 갖고 고객 여러분의 민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철 교수는 국가대표 B팀으로 출전해 개인 창작에서 은메달을, 김지웅 학생은 단체 뷔페부문 은상과 개인라이브부문 금상을 차지했다.

국가대표(A팀)로 출전한 서정숙 학

## 가 은 공인중개사

### 금 구

#### ☆전남지역☆

#### 염 전 양 어 장 (폐업전 포함)

#### 잡 종 지

#### 즉 시 매 입 가 능!

#### 상무랜드공인중개사

## 대인동삼일부동산

###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냉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상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 첨 단 신 청 동 신 가 동

### 상 가 건 물

#### 파 실 본 환 영!

#### (8 억 ~ 12 억 계 약 가능)

#### 《 매 수자 대 기 중 ! 》

#### 원 름

#### 파 실 본

#### 대 험!

#### (마 수자 대 수 대 기 중 )

#### 《 사 실 본 분

#### 문 의 환 영 》

#### (수 입 을 높 은 일 룸 많 이 있 습 니 다)

#### 광 주

#### 전 남

#### 토 지 매 매

#### 파 실 분 →

#### 빠 른 계 약 기 능!

#### 사 실 분 →

#### 원 하는 땅 구 해 드 릴!

#### 우 리 편

#### 공인중개사

#### 일 곡 지 구

#### 중 심 상 가

#### 밀 접 지 액 내 위 치

#### 010-3622-6076

#### 062-576-8484

(FAX)383-5221 (전 011-609-5221)  
(광주지구) 010-3622-6076 (062-576-8484)